

파이널을 위한 비핵화 요약본

비핵화는 결국 이게 전부다.

비문학 독해, 빠대부터 제대로 잡는 법

0. 들어가는 말: 왜 당신의 독해 점수는 흔들리는가?

많은 학생이 비문학 성적이 그날의 '컨디션'이나 지문의 '소재'에 따라 널뛰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경제 지문만 나오면 머리가 하얘지거나, 유독 과학 기술 지문에 약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시험의 결과를 '운'에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평가원이 글을 쓰는 설계도를 이해하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정해진 '루틴'에 따라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두 군인을 상상해 봅시다.

- 군인 A는 적의 탱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 군인 B는 "어떻게든 공격을 퍼부으면 무찌를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싸웁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도 침착하게 매뉴얼을 따르는 군인 A의 생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이나 운에 의존하는 대신, 평가원의 출제 원리에 기반한 명확한 행동 강령을 갖춰야만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요약본은 독해의 '빠대를 잡는 법'부터 '정보 덩어리를 이해하는 법'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체계적인 사고 과정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원이 글을 쓰는 설계도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빠대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로 글의 기본 재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글의 설계도 이해하기: 핵심 정보와 보조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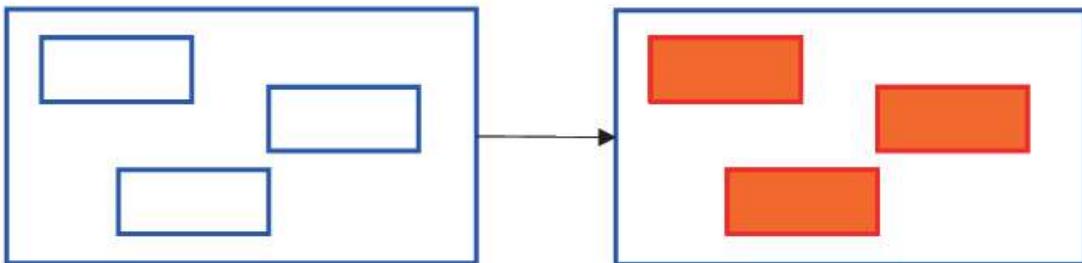
비문학 지문의 모든 문장은 두 가지 종류의 정보로 나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독해의 첫걸음입니다.

- 핵심 정보 (화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중심 내용입니다. 글의 방향을 이끄는 '화제'에 해당합니다.
- 보조 정보 (기본 정보)**: 핵심 정보를 독자가 제대로 이해하도록 돋기 위해 제공하는 배경지식이나 개념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AI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AI의 문제점'을 설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짜고짜 문제 점부터 나열하면 상대방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I란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 핵심 정보: AI의 문제점
- 보조 정보: AI란 무엇인가?

이 둘의 관계는 마치 '퍼즐 조각 맞추기'와 같습니다. 파란색의 핵심 정보 범주 내에, 비어 있는 곳곳에 빨간색 보조 정보가 끼워져 들어가 빈틈을 메워줌으로써 정보 덩어리가 되어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글의 재료가 되는 그림을 상상하면 쉽습니다.



다행히도, 평가원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은 아래의 3가지 패턴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I. 평서문 유형

키워드에 대해 무엇을 설명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예: 특징, 원리, 과정)

"이 글은 키워드의 무엇에 대해 설명하는가?"

II. 문제 제시 유형 (P→S)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점(Problem)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Solution)을 제시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해결되는가?"

III. 의문 제시 유형 (Q→A)

키워드에 대한 의문(Question)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Answer)을 제시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으며, 그 답은 무엇인가?"

이 패턴을 아는 것은 어둠 속에서 지도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글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할 수 있게 되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정보의 흥수 속에서 길을 잊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글의 정보는 종류와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정보들이 실제로 글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덩어리'를 형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정보 덩어리로 글 읽기 : 문단보다 큰 그림 보기

성공적인 독해의 핵심 목표는 흩어진 정보들을 보며 글쓴이가 처음에 구상했을 '글의 목차를 역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글의 숨겨진 설계도를 파헤치는 능동적인 분석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강력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정보 덩어리'입니다.

하나의 긴 비문학 지문은 사실 몇 개의 '정보 덩어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정보 덩어리'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보 덩어리 = [0~1개의 '화제 제시 문장' + 다수의 '구체화 문장']

- **화제 제시 문장:** "앞으로 이 키워드에 대해 이것을 설명할 것이다!"라고 정보의 서술 범위를 명확히 정해주는 문장입니다. (앞서 본 3가지 패턴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 **구체화 문장:** 화제 제시 문장이 정한 범위 안에서, 상세한 설명, 예시, 비교 등을 통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을 붙이는 문장들입니다.
- **화제 제시 문장이 없을 수도 있다.** : 화제 제시 문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문장과 문장을 붙이며 스스로 화제를 잡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오직 구체화 문장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보 덩어리'는 시각적인 '문단'과 일치하지 않는 더 근본적인 논리 단위라는 것입니다. 둘의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Case 1: 여러 문단이 모여 하나의 정보 덩어리를 구성하는 경우
- Case 2: 하나의 문단이 그 자체로 하나의 정보 덩어리인 경우
- Case 3: 하나의 문단 안에 두 개의 작은 정보 덩어리가 포함된 경우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눈에 보이는 문단 구분에 얹매이지 않고, '같은 핵심 정보를 공유하는 문장과 문단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글쓴이의 머릿속에 있던 목차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글의 구조를 파악했다면, 이제 실전에서 이 구조를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 실전 행동 강령 : 구분과 연결의 기술

성공적인 독해의 모든 과정은 '구분과 연결'이라는 단 하나의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학생은 글을 읽는 내내 숲(거시)과 나무(미시)를 넘나들며 이 원칙을 끊임없이 적용합니다. 이것은 순차적인 과정이 아니라, "부분에 집중하되, 전체에 대한 생각을 항상 곁들이며" 읽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사고 과정입니다.

거시적 차원 (숲 보기): 핵심 정보(화제)가 바뀔 때 명확히 '구분'하고, 같은 핵심 정보 안에서 여러 문단이 어떤 논리로 이어지는지 파악하며 '연결'합니다.

미시적 차원 (나무 보기): 한 문단 내에서 각각의 문장이 앞선 내용을 구체화하며 '연결'되는지, 혹은 새로운 소주제를 제시하며 '구분'되는지 판단합니다.

이 '구분과 연결'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단계별 행동 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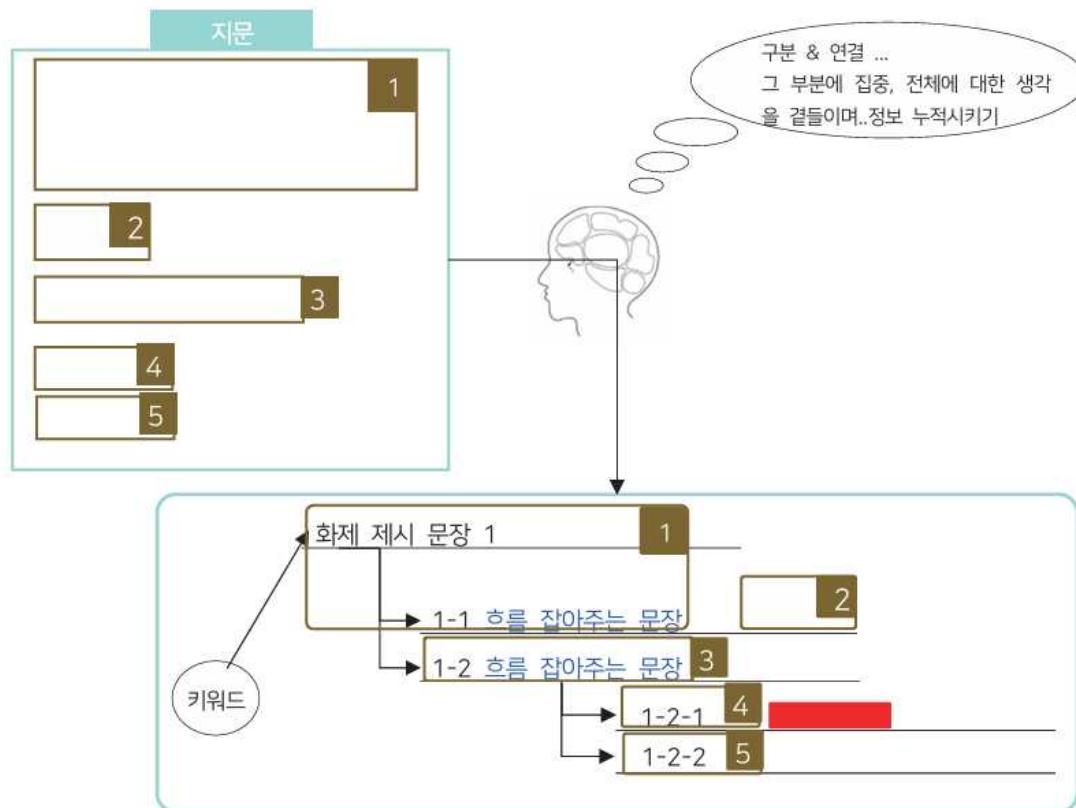
[1단계] 글의 초반부 읽기: 첫 번째 핵심 정보 확정하기

- 여러 문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읽으면서, 정보들이 어떤 중심 소재, 즉 '키워드'로 좁혀지는지 파악하세요.
- 초반부에서는 어떤 문장이든 화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보에 선불리 경종을 두지 말고 평등하게 읽으세요.
- 키워드에 대한 첫 번째 '화제 제시 문장'이 나올 때까지가 글의 초반부입니다. 이 문장(1장에서 배운 세 가지 패턴 중 하나)이 등장하는 순간, 글의 첫 번째 방향성이 확정됩니다.

[2단계] 초반부 이후 읽기: "부분에 집중하되, 전체에 대한 생각을 곁들이며"

- (부분) 한 문단 안에서는, 새로운 문장이 나올 때마다 바로 앞 문장과의 관계를 판단하세요.
이것이 바로 미시적 차원에서 '구분과 연결'을 실천하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문장이 앞 문장의 의미를 확장하면 '연결'하고, 새로운 정보를 던지면 '구분'하며 정보의 위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 (전체) 한 문단이 끝나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간 극 초반에는, 다음을 판단해야 합니다.
 - 핵심 정보의 흐름:** 이전에 다루던 핵심 정보가 계속 이어지는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핵심 정보로 전환되는가?
 - 문단 간의 관계:**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 문단은 앞 문단의 내용을 심화·구체화하는가, 아니면 대등한 관계의 다른 사례를 제시하는가?
- 이 과정을 반복하며 머릿속에 지문 전체의 '목차'를 그려나가세요.
이 모습은 마치 테트리스 게임과 같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새로운 블록(다음 문단)을, 이미 아래에 쌓여 있는 블록들(이전 내용)의 구조와 모양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위치에 체계적으로 쌓아나가는

과정입니다. 테트리스 블록을 쌓듯 문단을 쌓는 이 과정이 바로, 흩어진 정보를 끌어 글쓴이가 처음 이 지문을 쓸 때 만들었던 목차를 역으로 재구성하는 행위입니다.



4. 마무리

이 행동 강령의 최종 목표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글을 읽는 것에서 벗어나, 글쓴이의 의도를 따라 정보의 구조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독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들리지 않는 독해력의 본질입니다.

비핵화에서 설명하는 '독해의 논리', 위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독해 태도를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이네요. 날도 점점 추워지는 것을 보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지막까지 화이팅하십쇼!!